웹진 | FP저널

fpkorea.com/2014/kfpa_2015/sub/sub.asp

정책금융 3대장, 왜 주목해야 하나

지난 5월 22일에 처음 출시된 국민성장펀드는 첫날 대부분의 창구에서 완판 사태를 기록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개인투자자 몫으로 6,000억 원이 할당되었는데, 5,224억 원(87.1%)이 매진되었다. 예상을 웃도는 수요에 금융당국은 하반기 추가 물량 검토에 나섰다고 한다. 올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상품에는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국민성장펀드, 슈퍼ISA(예정) 등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RIA,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의 핵심

5월 24일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3월 23일부터 선보인 RIA계좌 가입 수는 242,856계좌, 총 잔고는 1조 9,443억 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까지 가입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월 말 기준으로는 훨씬 더 많은 RIA계좌가 만들어질 것이다.

2025년 12월 말 정부는 해외주식으로 쏠리는 자금을 국내시장으로 선회시키기 위해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계좌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12월 23일 기준 보유중이던 해외주식을 RIA계좌로 옮긴 후 RIA계좌에서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1년 이상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 등에 투자할 경우 22%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 계좌이다. 물론, 이 계좌의 도입 취지는 급등하던 원/달러 환율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환전하면 달러 공급과 원화 수요가 증가하여 환율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 정책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시장에 투자되어 있는 국내 투자자들의 자본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어 국내 증시의 활성화를 기하는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개인'이며, 미성년자도 포함된다. 가입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인 제도이다. 증권사별로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지만, 여러 증권사에 각각 계좌를 만들어도 된다. 단, 전체 납입 한도의 합계는 5,000만

원이다. RIA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비과세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절세 혜택이다.

[RIA 계좌를 통한 해외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매도 시점	공제율	비고
~2026년 5월 31일 매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100%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2026년 7월 31일 매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80% 공제	양도소득세 20%만 부담
~2026년 12월 31일 매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50% 공제	양도소득세 50%만 부담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대상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시장 복귀 조건을 충족하며, 1년 유지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즉, 단순히 RIA계좌만 만든다고 혜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과 보유 기간 요건을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 RIA계좌는 일반 증권계좌처럼 자유롭게 입금·출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원화와 외화(달러)의 일반 입금은 불가하고,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뒤 들어오는 구조가 기본이다. 출금은 납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납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금액을 1원이라도 인출하면 해지로 간주되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 인기 비결 세 가지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설계된 상품으로,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정책펀드이다. 이 펀드는 'K-엔비디아' 육성,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해상풍력·전고체 배터리 등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올해 국민참여형으로 배정된 금액은 총 6,000억 원인데, 펀드 판매 첫날 거의 완판되는 큰 인기를 끌었다. 인기의 비결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손실 흡수 장치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자산의 20%까지 후순위로 투자해 투자자 손실을 우선 흡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우선 정부가 20%까지 떠안겠다고 하여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소득공제 혜택이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28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별 소득공제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혜택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큰 혜택을 보는 구조이다.

세 번째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다. 일반적인 절세계좌는 납입 시에 혜택을 주거나, 배당을 받을 때 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민성장펀드는 납입 시점에도 소

[국민성장펀드 투자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

투자 금액 구간	소득공제금액	예시
0 ~ 3,000만 원	투자금액의 40%	3,000만 원 투자 시, 1,200만 원 소득공제
3,000만 원 ~ 5,000만 원	투자금액의 20%	5,000만 원 투자 시, 1,600만 원 소득공제
5,000만 원 ~ 7,000만 원	투자금액의 10%	7,000만 원 투자 시, 1,800만 원 소득공제
7,000만 원 ~	0	9,000만 원 투자 시, 1,800만 원 소득공제

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투자 수익을 수령할 때에도 9.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절세 상품이다.

다만, 몇 가지 조건도 유의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 폐쇄형으로 5년간 유동성은 제한된다. 단,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는 할 수 있지만, 3년 이상 투자할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투자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환매하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한다. 1인당 최대 투자 한도는 2억 원이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로 받는 소득공제금액은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합산해 종합한도 2,5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투자 직전 3년 중 1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세제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슈퍼ISA, 출시 예정 골자

‘슈퍼ISA’는 비공식 별명이고, 공식 명칭은 ‘생산적 금융ISA’이다. 아직 공식 출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생산적 금융ISA(슈퍼ISA)는 국민성장형ISA와 청년형ISA 등 두 가지로 나뉜다.

국민성장ISA는 청년층에 제한되지 않고 누구나 가입 가능한 형태로 출시될 예정이며, 국내 주식·국내 ETF·국내 펀드 등 국내 자산 중심 투자 시 기존 ISA보다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에서는 비과세 한도 확대, 분리과세 세율 인하 등이 함께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와 연계될 예정이다. 크게 보면 국민의 투자 자금을 국내 핵심 산업과 성장 기업으로 연결하겠다는 정책적 목적이 반영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ISA에서는 해외 ETF 중심으로 글로벌 운용을 진행하고, 국민성장ISA에서는 국내 성장 산업 중심으로 투자하는 투트랙 투자가 유효할 것이다.

청년형ISA는 청년층(19~34세)의 자산 형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 기간에 따라 가입 가능 연령이 확대될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기존 ISA가 수익에 대한 절세 혜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청년형ISA는 납입하는 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계획하고 있다. 즉, 투자할 때에도, 수익을 받을 때도 절세 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구조가 예상된다.

단, 청년형ISA 가입자는 국민성장ISA나 청년미래적금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을 것이다.

[기존 ISA vs 슈퍼ISA(생산적 금융ISA) 비교]

구분	기존 ISA	슈퍼ISA(생산적 금융ISA)
가입 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국민성장형: 19세 이상 거주자 청년형: 총급여 7,500만 원 이하(19~34세)
투자 범위	국내 주식, 국내외 ETF, 펀드, 예·적금	국내 주식, 국내 ETF, 펀드, BDC,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	손익 통산 후,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대폭 확대 예정
중복 가입	1인 1계좌	기존 ISA와 중복 가입 가능 단, 청년형ISA는 중복 가입 불가
상태	가입 가능	2026년 하반기 신설 예정